

일시 2006년 12월 4일 (월)  
오전 2시-5시30분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회강연장



제3회 과학기술, 사회를 만나다 포럼

주최 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과학문화재단



## 제3회 '과학기술, 사회를 만나다' 포럼 중계

# 과학자여! 금융영역으로 진출하라

글 | 서금영 \_ 동아사이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

“**나**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투자를 제대로 했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는 곧 확률론이다. 사회과학은 인간을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관찰로 대체한다. 그러나 경험 연구가 아무리 발달해도 전산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는 무용지물이다. 그만큼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2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 사회를 만나다' 포럼에 참석해 '첨단기술과 경제학 : 계량분석의 활성화와 효율적 기술투자'란 주제로

“과학기술인이 직접 금융 영역을 장악하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 본인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마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학으로 진로를 바꿨다.

### 경영학 박사도 공대 교수로 뽑는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오늘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소수라면 국민 모두가 손해”라며 “검증되지 않은 과학기술에 합리적인 투자를 하려면 과학기술자가 직접 금융 부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부문의 인적구성이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김문겸 연세대 공대 학장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

현재와 같다면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이 교수는 “과학기술자가 금융지식까지 갖추면 과학기술 R&D의 효율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투자기법을 개발하는 금융공학 부문은 자연과학적 배경을 지닌 인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세계적 학문의 추이를 소개했다. 그만큼 과학적 합리성과 논리성은 모호한 가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변환시켜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학기술 경영에 있어 투입요소는 우수하지만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벤처와 기술금융의 활성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 부원장은 “외형적인 과학기술력은 경제규모와 함께 세계 11~12위권이지만 논문의 피인용도는 20위권”이라고 지적하며 “R&D의 단기적 효율성 추구를 위해 중장기적 효율성을 저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문겸 연세대 공대 학장은 “연세대 공대 출신의 비전공분야 진출률은 10~15% 정도”라며 “우수한 공학인재의 양성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공학적 소양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연세대 공대에는 경영학 박사학위자 4명, 과학기술정책 박사학위자 1명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으로 공학이 아닌 경제나 사회학 전공자도 더 뽑을 예정이다.

### 공학을 다루는 ‘공법(工法)’

‘과학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 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과학기술의 핵심은 R&D지만 최근엔 기업도 필요에 따라 R&D를 아웃 소싱한다”고 말했다. 세계 우수

기업은 경쟁부문에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적재산권 확보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교수는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내다보며 제도적 준비를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에는 국가 공무를 담당하던 공법과 재판을 담당하던 사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학을 다루는 ‘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이제 유전자도 특허로 출원된 시대”라며 “우리 몸을 이루는 블루프린트를 고치려 해도 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2014년 즈음엔 유전정보도 100만 원이면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화될 법률시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처럼 과학과 금융, 과학과 법률이 학문간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언론의 기능은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 김학수 서강대 언론대학원 교수는 ‘과학과 언론 : 서로 멀어지기의 원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과학을 나열만 해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과학도 불경기나 에너지부족, 노인문제, 실업 등의 주제를 심층보도하며 다룰 때 일반인에게 생활 속의 일부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며



김학수 서강대 언론대학원 교수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일반인에게 공동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미끼로 던지고 그 해결책으로 과학을 보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창조력의 한계를 넘는다

한편 기초강연에 나선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 사회·사회과학을 만나다’(메타과학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자연과 사회에 속하는 일차적 실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을 과학이라 부른다면 이제는 과학과 이것이 빚어낸 문명자체를 대상으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메타과학’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적 도약은 바로 과학을 발판으로 하는 메타과학으로 올라서는 도약을 의미”한다며 “인류가 과학기술 문명의 노예가 아닌 문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불가피한 요청”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천문생물학, 바이오물리학, 법률전문회계학 같은 융합의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며 “과학의 진실성과 과학윤리를 더 선양하는 자세로 임할 때 성숙한 메타과학이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와 김영수 조선일보 산업부장 등이 참석해 ▲미래기술 기획의 경제학 활용법 ▲과학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는 법학 ▲경제·윤리적 소양을 지닌 공학인 육성 ▲지적재산권 확대에 대한 대비책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과학기술이 편리하고 유용한 일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류의 사고방식이나 창조력의 한계까지도 제고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법학, 언론과도 소통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포럼을 마무리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인간을 만나다’(9월 27일), ‘과학기술, 예술을 만나다’(10월 31일)에 이은 연속 포럼으로 자체 평가를 통해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또 포럼의 내용은 책으로 출판된다. ㉮

